

클래식 선율이 흐른다

광주문예회관, 6월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토니운 무대
힐러리 한 10월 예정...양인모 등 출연 새 기획 준비 중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와 토니 운,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이 해외 연주자들의 내한 공연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코로나 19로 집체를 겪던 지역 공연계가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문예회관은 아울러 대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주로 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실내악과 독주공연을 시리즈로 마련해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또 다른 기획공연도 준비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실내악 7팀이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며 독주 무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피아니스트 원재연 등이 오를 예정이다.

문예회관은 6월 중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와 토니 운의 무대를 마련한다. 당초 6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21세기 바이올린의 여제' 미국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의 무대는 10월로 일정을 조율중이다. 반면 8월 예정된 '중국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리신차오' 무대는 아쉽게도 만날 수 없게 됐다. 스티븐 허프, 토니 운의 공연은 현재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스티븐 허프가 함께하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355회 정기연주회 'No. 5'는 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홍성원 광주시향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날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작품은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이자 최대 역작 중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이다. '황제'는 3악장 전체가 당당하고 웅대하여 후세에 '황제'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웅장한 스케일과 찬란한 색채가 인상적이다.



토니 운

2부에서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핀란드 공국 정부가 시벨리우스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의뢰한 작품으로 1915년 봄에 완성됐다. 이 중 3악장 '백조의 테마'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가운데 가장 극적인 악장으로 꼽힌다.

스티븐 허프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가, 작곡가, 화가로 활동중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는 허프를 살아있는 20명의 지식인 중 한명으로 선정했으며,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는 상인 '맥아더 펠로십'을 클래식 연주자 최초로 받기도 했다. 또한 클래식 음반상인 그라모폰 상을 7차례나 수상하기도 했다.

2019 제1회 중국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인 토니 운 리사티들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001년 토론토에서 태어난 토니 운은 현재 마티 라칼리오 교수를 사사중이며 줄리아드 음악학



스티븐 허프

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바흐-부조니 '샤콘느 라 단조', '주여 내가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베토벤 '소나타 제15번 전원', 리스트-벨리니 '노르마의 회상', 바그너-리스트 '파르지팔로부터의 거룩한 성배 행렬', 스트라빈스키-아고스티 '불새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토니 운은 중국 팔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투어를 비롯해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중이다.

오는 10월 10일 문예회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특별 기획공연에는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이 출연한다. 피아졸라 사후, 1995년 그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아스토르 피아졸라 재단은 무수히 많은 연주자들 가운데, 피아졸라의 감각적이고 탁월한 음악성을 옮길게 계승할 단 5명의 솔리스트들을 선발했다. 올해 아스토르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피아졸라의 곡을 오리지널로 만나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정용준 작가

후세대 작가 작품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ACC 특화강좌는 7월 개막 예정인 전시 '냉장과 환상'과 연계해 진행된다. '냉장으로부터 음식을 구하라' 강의에선 '사람의 부엌'의 저자 류지현과 다비드 아르투보 디자이너 작가 듀오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냉장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대의 식문화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수강 신청은 ACC 누리집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강좌는 무료. 문의 1899-5566.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6월호

예향



'슬기로운 광주 탐구, 光州學(광주학)' 미술품 2만3천점 기증 '이건희 컬렉션'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6월호(통권 308호)가 나왔다. 이번호는 문화예술의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알아보는 '슬기로운 광주 탐구, 光州學(광주학)'을 준비했다.

광주의 '과거'를 모르고서 '현재'와 '미래'의 광주를 열어갈 수 없다. 광주학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도시인문학이다. 광주 문화재단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광주학' 연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탐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요즘의 '광주학' 연구흐름과 앞으로 나아갈 지평(地平)을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최근 개봉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이정국 감독을 만나고 왔다. 이 감독은 1991년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35mm 극영화 '부활의 노래'로 데뷔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올해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만들어 개봉했다. 이번 영화에서는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반성 없이는 피해자들의 고통도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최근 국내·외 미술계가 주목한 이슈가 있었다. 화제는 단연 '이건희 컬렉션'. 지난 4월 삼성그룹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평생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점을 국내 국·공립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컬렉션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에도 50여점의 작품이 기증되면서 지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두 미술관은 각각 6월 29일과 9월 1일 소장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예향 기획 '이건희 컬렉션을 만나다'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의 대표작들과 광주·전남 기증작들

을 지면으로 먼저 만나본다.

'광주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전남 작가들은 연대의 깃발을 들고 미얀마 사진전과 미술전시회 등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고, '2021년의 광주'로 읽히고 있는 미얀마의 오늘과 동행하는 다양한 전시로 안내한다.

발길 닿는대로, 마음 내키는대로 남도를 둘러보는 의미로 시작한 기획물 '짜뭇짜뭇 남도한바퀴'가 마지막 여정으로 '맛의 도시, 낭만항구' 목포를 다녀왔다. 개통 2년을 맞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대만동 스카이 워크, '춤추는 바다분수' 등은 여행자들에게 색다른 인상을 남긴다. 일제강점기 건축물과 유달산자락에 형성된 골목길, 없는거 빼고 다 있다는 '수산물들의 천국'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등을 찾아본다.

'클릭, 문화현장'은 스테인드글라스 불화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도심 속 사찰'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도 안내한다. 시민문화공간인 '무각사 문화관' 내에 자리한 갤러리에서는 현재 서양화가 황영성 초대전 '소와 가족 이야기' (-7월 20일)가 열리고 있다.

이외에 천년고찰이 품은 시간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첫 번째 이야기, 5개의 천장을 낸 독특한 리모델링으로 시선을 끄는 양림동 한옥 '가연지소', '문화를 품은 건축물' 스페이스K 서울, '문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예술단체' 재즈 인디밴드 'SOOF', KIA타이거즈의 임시주장을 맡고 있는 나주환의 시즌 각오 등 다채로운 이야기들 담았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치유와 회복' ACC 시민문화예술강좌

12일~7월 27일 문화예술·인문사회·특화강좌 진행

예술체험, '꿈과 책', 라이브클래식, 호흡명상, 냉장고와 음식...

삶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시민문화예술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문화예술, 인문사회, ACC특화강좌 등 3개 분야 4개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문화정보원 아카데미 강의실과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먼저 오는 치유와 회복의 예술 체험 강좌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흙, 물, 불, 바람과 예술 치유'를 주제로 펼쳐지며 세상을 구성하는 4개 원소가 모티브다. 인도와 서아시아 전통춤, 음악연주, 요가, 호흡명상 등을 매개로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내면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

다. 무용수 박은경, 플러멩코 댄서이자 무용치료사 박은성, 생태와 환경음악을 구축하는 연주자 김병제가 시민들을 만난다.

정상급 연주자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ACC '라이브클래식'도 마련돼 있다. 오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공연식 강연으로 진행되며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의 음악과 현대음악의 대가 신창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안무가 펼쳐진다. 바로크 시대의 전통춤에서 스윙, 삼바, 탱고에 이르는 다양한 춤곡을 현대적 몸짓으로 풀어내는 무대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가운데 한명인 박완서를 모티브로 한 강연도 열린다. '꿈과 책과 힘과 벽' (29일부터 7월 27일)을 주제로 펼쳐지는 강좌에서는 작고 10주기를 맞는 박완서 작가의 삶과 문학 등을 다채롭게 조명한다. 임현, 강화길, 정용준, 손보미 작가는 박완서의 작품이 어떻게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전'

지난 2019년 무등산 자락에 문을 연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청년작가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드영미술관이 '2021 청년작가 전시지원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광주시 동구 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미술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젊고 패기 있는 작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조형 언어 수용, 이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

자격은 만 40세(1981년생) 미만의 광주시 동구에서 출생 또는 거주하거나 동구를 기반으로 활

동하고 있는 청년작가이며 개인전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을 가진 시각예술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드영미술관의 전시공간 제공 및 제반사항 지원과 함께 400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작품 전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드영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10일이며 심사를 거쳐 2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하는 사람은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고 작품 소개 및 이미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와 필수제출서류를 첨부해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발표일은 오는 18일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